

# 2014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결 의 문

먼저, 2010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힘써 주신 유치위 관계자를 비롯한 300만 강원인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열악한 아시아의 동계스포츠 저변확대와 세계유일의 분단국가로서 스포츠를 통한 이데올로기의 초월과 평화를 소명으로 시작한 「2010동계올림픽」이 순수한 스포츠정신에 위배된 강대국들의 정치·경제적 이권다툼과 김운용 IOC위원의 개인적 영달을 위한 대의를 저버린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하여 무산된 것에 대하여 분노를 금치 못하는 바이다.

이에 5만 군민을 대표한 우리 평창군의회 의원일동은 가슴속 깊은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절반의 성공”에 위안과 통한의 울분을 함께 하며 그동안의 땀과 열정으로 쌓인 “경험”을 바탕으로 2014년 동계올림픽은 기필코 유치할 수 있다는 유치신념의 의지를 다시 한번 승화시키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2014년 동계올림픽 국내 후보지는 IOC위원과 국제적인 지지여론, 개최여건 등이 충족된 우리 평창이 반드시 결정되어야 한다.
1. IOC부위원장 출마라는 개인 영달을 위해 국가와 국민의 뜻을 저버린 매국노 김운용에게 마땅히 책임을 물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앞으로 우리 의원일동과 5만군민은 300만 강원인의 결연한 의지를 한데 모아 이번 체코 프라하의 결과에 굴하지 않고 2014년 그날의 함성이 대한민국 평창에서 울려 퍼질 그날까지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위에서 결의한 바와 같이 우리는 그동안의 모든 경험을 거울삼아 세계유일의 분단국·분단도인 강원도 평창에서 2014년 동계올림픽을 유치함으로써 한국올림픽의 완성과 더불어 세계인류평화에 이바지할 것을 다시 한번 결의한다.

2003년 7월 15일

강원도 평창군의회 의원일동